
한국어 교원, 그들은 누구인가?

때: 2006. 5. 30.(화) 15:00~17:00

곳: 국립국어원 2층 회의실

참석자: 이상규(국립국어원 원장)

손희하(국립국어원 국어정책진흥본부장)

백봉자(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 교수)

김중섭(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조항록(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이미혜(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수)

오광근(한국어세계화재단 연구실장)

정명숙(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교수)

김원희(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김옥순(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사회)



▲ 특집 좌담회 모습.

이상규 원장: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일정도 있고 해서 좌담회에 계속 참석하기는 힘듭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대담을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립국어원이 한국어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새롭게 정비하고, 또 관계 기관과 학교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문화부의 수준에 맞게 앞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어 해외 보급은 외교통상부와 교육부 또 문화부 등 여러 부처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외래어를 써서 미안한데 스펙트럼이 아주 다중적이고 층이 아주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부의 입장은 가장 낮은 쪽에, 그러니까 고급 교육이 아니고 한국의 문화 보급을 전제로 한 한국어 보급이라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 한 가지 정비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어 보급이 절대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먹고 살기 낫게 되었다는 오만한 방식이 아니고 상호주의 문화 교류에 입각해서 전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

문화부의 정책실장, 또 차관, 장관님께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겸허하게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해외 보급 부분에 실태가 얽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각 부처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서로 갈 길을 정하고 그 방법이 서로 얽히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적인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정비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것은 금년도에도 문화부에서 한국어 해외 보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어원에서 좀 치밀하게 연구하고 주변에 있는 대학 연구소라든지 또 세계화재단이라든지 주변의 한국어 해외 보급을 위한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어원에서는 해외 문화원을 거점으로 해서 문화원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대담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길을 좀 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대담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대담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희진 부장님, 멀리서 오신 분들 좀 잘 대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옥순: 손희하 본부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손희하 본부장: 요즘 여러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이라든지 또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 가고 있고 또 한국어교육학회가 전국에서 제일 잘되는 모임이라고 요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바쁘실 텐데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이 논의 사항이 우리 국어원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안으로서는 아주 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서 가지고 앞으로 잘 꾸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원장, 본부장 회의실을 떠남.]

김옥순: 이번 좌담회는 2006년도 『새국어생활』 여름호 특집 제목인 “한국어 교원자격검정 시험제도”로서 교원 자격 심사와 능력 검정 시험 이 두 가지 제도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좌담의 구체적인 제목은 ‘한국어 교원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이 되었는데요. 한국어교원 자격검정 시험제도가 왜 필요하고 한국어 교원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시험 제도가 왜 생겼는지, 교원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합법적 지위를 주기 위해서 생겼는지, 좋은 점은 어떤 것이고, 또 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서류 심사, 자격 심사에 통과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대학에 계신 여러 한국어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로 다 아시는 하지만 돌아가면서 먼저 좀 인사를 하실까요.[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

김옥순: 여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하면 좋은 의견이 나와서 좌담회를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를 위해서 서류 신청을 받고 있는데, 김원희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응시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김원희: 우리가 서류 접수를 4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의 30초에 한 통씩 문의 전화를 받았고요. 5월 24일에 서류 접수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우체국 소인 5월 24일 찍힌 것까지는 받았습시다. 그렇게 하여 현재 1,500여 통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옥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응시했는지 분류가 됩니까?

김원희: 지금 국어기본법의 별표 1을 보시면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급종은 2급, 3급으로 되어 있고요, 동일한 급에서도 조건에 따라 번호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급의 경우 국어기본법 시행 이전에 대학에서!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했다면 번호 1을 선택해야 하고 이후에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했다면 번호 3을 선택해야 합니다. 3급도 교육 경력 800시간 이상의 조건으로 신청을 할 경우 번호 5를 선택해야 하고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번호 6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류를 받으면서 신청 번호에 따라 바로바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집단에서 교원 자격 심사에 관심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누구나 법 앞에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느 기관에서든지 양질의 교원들을 안심하고 모실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번에 국어기본법이 잘 생겼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또 기본법 안에서도 미비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령을 고쳐 나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들을 심사위원회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방안을 계속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항록: 지금 김옥순 팀장님 말씀 중에 국어기본법의 제정이 한국어 교원 양성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말씀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어기본법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한국어 교육 쪽에 세 가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내용하고 교재를 개발한다는 내용하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의 법률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즉 해외동포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 개발이라든지 시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오늘 논의의 중심이 되는 전문가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육이 존재했으면서도 자격 있는 교사에 대한 규정조차 논의가 없었던 한국어 교육계의 가장 미진했던 부분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에 맞춰 교사 자격을 정한 과정에서 교육대학원 출신이라든지 학부 출신들은 자동적으로 2급 자격을 받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향후 3급을 받으려면 인증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양성 체계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사실은 과거에 60시간, 50시간, 80시간, 90시간 하던 그 양성 과정들이 이 별표가 정하고 있는 120시간의 교육과정을 다 채택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한국어 교육계에 교사 양성 시스템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 체계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균적인 질적 상승에서 상호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느 양성 과정 출신은 합격률이 90%다, 어느 양성 과정은 30%다 하는 그런 것이 공공연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호 경쟁을 통한 양성 시스템의 확충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봉자: 저는요, 지금 조항록 선생님의 의견에 찬성을 하면서도 이 국어 기본법 보완에 시급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과연 120시간을 공부하고 양성 과정을 들은 사람들이 외국인을 가르치는 교실에 투입돼서 정말 교사로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저는 회의적이에요. 저도 이 법을 공청회에서도 강력하게 지지 발언했고, 인증 시험을 한국어 교사들의 위상 때문에 처음 제안했다고 할까 한 사람도 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20시간 중의 한국어 교육 실습이 17%거든요. 그러니까 120시간을 100으로 봤을 때 17%의 숫자가 실습이에요. 그 실습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대개 모의수업을 하고, 참관을 하고, 그다음에 경력 교사와의 면담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일부 정말 좋은 양성 과정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7%에 해당하는 그런 적은 시수를 가지고는 예비 교사가 실습 훈련을 받기에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걸 제가 실제로 가르쳐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거고, 외국의 경우에, 선진국 영국의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선진국에서 보면 적어도 100시간 정도를 담임 교사 또는 경력 교사들하고 면담을 하고 워크숍을 합니다. 모의 수업을 할 것을 자료를 가지고 면담하고 다시 수

정해서 교안 짜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개별 지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기본법에는 그런 게 빠져 있어요. 기본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법 테두리 안에서 수업을 해 주기가 너무나도 쉬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다음에 이런 양성 과정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을 우리가 동료들이 많아지니까 반가워하고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느냐 이런 것이 저는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생각해 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돼요.

하야튼 저로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이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자격증 있는 한국어 교원들을 정말 제대로 대접을 해 주게 될 것이고, 제대로 우리가 잘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저변에 기초가 쌓이고 바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옥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명숙 선생님도 양성 과정을 오랫동안 책임지고 계신데, 지금 각 대학마다 양성 과정이 있지요?

정명숙: 네. 대부분요.

김옥순: 그런데 정 선생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백봉자 선생님 의견에 찬성하시나요?

정명숙: 우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 80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어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교육과정을 120시간으로 늘리고 그 전에 빠졌던 내용을 더 보충을 하고 또 좀 더 많았던 부분을 좀 더 줄이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니다. 그리고 백봉자 선생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교사 양성 과정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 지방 대학교나 기관에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 봤는데, 이 국어기본

법에서 과목 같은 것도 다 정해져 있고 시간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는 제정된 원칙에 따라서 과정을 개발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쉬워진 거죠. 그래서 기본법 이후에 한국어 교육 기관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옥순: 아, 그렇군요. 그런데 백봉자 선생님은 120시간도 부족하다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20시간에다 실습 시간 같은 것이 100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각 대학의 양성 과정이 80시간이었다가 120시간으로 늘었으면 오히려 40시간이 늘어난 건데,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백봉자 선생님은 좀 이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실습 시간이 100시간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지 국내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중섭: 제가 그걸 좀 보완한다면 선생님 말씀은 그 짧은 시간에 교사를 양성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양성 과정을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학원 과정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양성과정 출신 교사를 강사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못 됐어요. 왜냐하면 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씁니까? 한국어 교사를 양산만 할 뿐이고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그럴 바에는 제대로 가르쳐서 질 좋은 교사를 만들어서 제대로 자기 대접을 받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추세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양성 과정을 시작을 했고 실제로 양성 과정에서 공부한 교사들을 교육 현장에 투입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교수법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국어 양성 과정이 정리는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국가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모여서 커리큘럼도 만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틀로서만 작용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현장에 얼마만큼 먹혀들어 가느냐 하는 문제는 있는 거죠.

김옥순: 그런데 채용 관계는 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의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법으로는 국가 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국어기본법이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조항록 선생님께서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어 교육이 너무 난립해 있고 관심이 너무 폭발적으로 많다 보니까 기준은 만들었는데 각 단체에서 기본법의 자격 심사를 통과하신 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경희대학에서도 교원으로서 써 보셨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김중섭: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미를 너무 낮게 잡는다면 정리 차원밖에는, 우후죽순처럼 나와 있는 모든 교육과정들을 정리하는 정도밖에는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더 질을 높이면서도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런데 그게 국립국어원 하나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정리한다면 그 의미는 굉장히 큼니다. 그리고 국어기본법 안에 한국어 교사에 대한 항목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미혜: 제 생각에는 우선 국어기본법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우리 기관도 95시간 정도의 교사 연수 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시간으로 늘리게 됐는데 그 시간에 교원 양성 과정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기에는 시간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했던 것보다 교과목의 수가 훨씬 늘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교육 실습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싶었지만 이론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습을 충분히 하기에는 120시간이 결코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매일 하루에 한 과목씩을 이수해야 되는 정도니까 학습자들이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교육 시간은 현 상황에서 이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원 자격 제도가 실시되면서 분명히 종래에 교원 자격 없이 강의했던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게끔 만드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교원 자격이 있다고 무조건 어딘가에 취업할 수 있는 건 아

니니까 나름대로의 효력도 있으면서 최소한의 시간도 요구하니깐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어 교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연수가 결코 너무 적다는 판단은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에 따른 정당한 혜택이 주어지면서 교육 시간이 함께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조건 지금의 120시간을 240시간으로 늘리고 어떤 나은 대우를 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는 것과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120시간으로 부족한 연수 시간을 우리 기관의 경우에는 교사 채용을 하면서 6개월 인턴십을 운영하여 보충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은 거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사가 교수법도 익히고 그 밖의 여러 가지를 익히는 기간으로 삼는데요, 만일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 대로 교단에 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 현재의 연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사의 조건과 대우를 같이 발맞춰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중섭: 제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여쭙 보고 싶은 건데. 이미혜 선생님, 이화여대가 아마 현재의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 가장 잘되어 있는 기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명 정도가 졸업 이수하면서 일 년에 몇 명 정도를 강사로 쓰십니까?

이미혜: 많이 못 쓰죠. 5명 정도. 이런 정도밖에 못 씁니다.

김중섭: 아마 100명 이상 되는 데에서 5명도 쓰지 못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인 비용은 작은 게 아니에요. 이들을 어떻게 교사로서 취업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정말 커요.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바로 이런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게 문제 해결일 거예요. 그런 걸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조항록: 제 발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 양성 과정의 존재

의미 부분이 그 양성 과정을 나오면 양성 과정을 실시한 교육 기관에 임용
이 되기를 희망하고, 물론 그것이 최우선적인 기대 순위일 수도 있겠습니
다마는 절대적으로 자기 기관에서의 임용이라든지 또 대학 부설의 교육
기관의 임용만을 전제로 해서 교사 양성 과정이 운영된다고 보지는 않습
니다.

교사 양성 과정의 사회적 기능 자체는 학부라든지 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든지 간
에 조금이라도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물론 상당히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폭넓게 산재하게 된 거
죠. 선교 목적일 수도 있고, 근로자 교육일 수도 있고, 자원 봉사일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교사 양성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회적 요구
에 부응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어떤 개인적 기대라든지 선호도에 따라서 양성
과정을 마치고 나서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측에서 양성 과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운영의 실태라든지 그 향후 진로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라든지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 과정이
갖는 사회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로 볼 필
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120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백 선생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120시간의 과정으로 한국어 교사로서의 전체 자질을 갖추 수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어 교사 같
은 경우도 이론 한 270, 280시간에 실습 한 200여 시간, 400여 시간의 과
정을 이수해야 일본어 교사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본의 교사 자격 시험, 양성 대비 과정들은 400여 시간의 교과 과정을 제
공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그렇고, 한국의 중등 교원 자격 연수도 180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120시간이란 것은 턱없이 모자
라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교사 양성 과정이 정
말 50, 60, 70, 80, 90시간, 뭐 서울대학교의 192시간짜리, 상명대가 한때
180시간을 했지만 그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다 100시간 이내의 교과과정

을 운영하는 그런 현실을 아마 국어원 측이나 문화부 측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저는 제도화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나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제도화를 도입하고 그것으로 점차 정리해 가는 과정, 체계화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120시간도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 보완이 된다면 도입한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성 과정을 120시간 나왔다고 하여 교사 자격증을 바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원 능력 인증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국가의 교원 자격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시간 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초점을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옥순: 백봉자 선생님이 문제 제기를 아주 예리하게 잘 짚어 주셨고, 또 조항록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 장치라는 것을 잘 말씀을 해 주셔서 교원 양성 과정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백봉자: 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120시간 제도 도입이라는 것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단계를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김옥순: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시면서 120시간 제한으로 능력 없는 한국어 교사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되셔서 그러신 말씀을 잘 들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제기를 잘 해 주셨고, 사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어떻게 발전돼야 할지 여기서 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항록 선생님께서도 제도적으로 정말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기반의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학에서 부전공, 전공, 복수 전공을 한 분들은 그냥 서류 심사만으로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김중섭: 물론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국어 교사라든지 다른 교사에 비해서 한국어 교원 자격이 시간이 적다거나 이리지는 않으니까 그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정명숙: 시행령 안에 교육 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섭: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게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예전에 그랬나요?

조항록: 한세추(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바탕이 됐지요.

김중섭: 한세추에서 한 것이 각 대학마다 보완도 되고 바탕이 됐습니다. 그 대학의 대학원 과정, 교육대학원, 요샌 뭐 교육대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박사 과정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논의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 그렇고, 또 석사 과정, 일반 대학원, 또 한국학과도 있잖아요.

조항록: 한국학과 연계 과정들이 많이 있죠.

김중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어요. 왜 다듬느냐면 자격증을 주려 하면 만약에 한국학 박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나도 자격증을 달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항록: 사실 그 부분은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위원회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전공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전공 학위나 전공 명기가 되면 부전공하고 복수 전공도 학위기에 명기가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연계 전공의 경우에 한해서는 계속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원희: 현재 자료 준비 중입니다.

김옥순: 이번에는 그러면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화재단에서 그동안에 실시하셨는데, 능력검정 시험은 현재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분들에게 필요한 시험인데 기본법이 생기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응시했나요? 시험 내용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단서라든가 그런 것을 간단히 한국어세계화재단 연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광근: 민간 자격이었을 때 시험의 자격 조건은요, 대학교 졸업자 이상이었습니다. 조건은 그거 하나였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4회 시험을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1,170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1,026이 응시를 해서 24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률은 대체로 24.26%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일본인이 총 7명, 조총련 분이 한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옥순: 24%밖에 합격을 안 한 것은 괜찮은 비율입니까?

오광근: 민간 자격 국가 공인 심의 절차에서 그게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경우는 합격률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 높은 편인데, 사실 우리는 20% 정도면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응시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퍼센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교사로서의 자격 요건이 뭔지를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좀 더 까다로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아마 모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원희: 사실은 제가 민원을 받을 때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계화재단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3급의 자격이 있는데, 자기 친구 중에 대학에서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재단의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2급 자격증이 나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오광근: 그 부분에 대해 변명거리가 있다면, 교수도 떨어졌거든요.(다 같이 웃음) 시험이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시험 공부를 하면 붙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학력은.....

정명숙: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진짜 교원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원희: 시행령 개정에서도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게 이런 거 같아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학 내에서 이론적인 교육 부분은 보완을 해줄 수 있는데 실습 부분은 보완을 못하잖아요.

김중섭: 요새 추세는 많이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봉자: 그런 문제 때문에도 문항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시험 날짜가.....

오광근: 9월에서 10월 정도.

김중섭: 아, 그 시험은 계속 치릅니까?

오광근: 아니요. 우리는 못 치르고 국립국어원에서 치르는 시험이 지금 공고가 그렇게 났습니다.

김원희: 아니요. 작년에 시행령 발표가 있고 나서, 올해 2회 실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형 개발이 늦어지면서 한 번만 보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니다. 얼마 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시험 연기에 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오광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시험을 보게 되어 있으니깐요. 앞으로

는 민간 자격 시험은 의미가 없게 되죠.

백봉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험이 시험 준비를 하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항 개발하기 이전에 항목 공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인증 시험을 4년인가 그렇게 걸쳐서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말하기, 쓰기 이렇게 항목별로 개발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항목이라도 공개를 해서 이런 정도의 시험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든지, 문항 개발하는 것을 공개하거나 물론 모의시험 같은 것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날짜는 계속 미뤄지고 그러니까 궁금하죠.

김원희: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되냐고 묻는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처음 실시되는 시험이니만큼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구체적인 안내가 나가야 될 거고요, 시험 실시 3개월 전에는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좀 여유를 두고 수험생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겠지요.

김중섭: 그런데 그 시험은 어디에 대행을 줍니까? 민간 단체에 위임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됐습니까?

백봉자: 그걸 국어원에서 우리한테 알려 주실 의무는 없죠. 그런데 수험자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김중섭: 왜냐하면 이게 KBS에서 실시하는 능력 시험하고는 다른 거 아니요.

조향록: 국어원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개인적 이익에 침해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합격 여부에 따라 취업 여부도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백봉자: 그리고 우리 한국어 교육계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못하면 한국어 교육계가 다 망신하는 거예요.

오광근: 이 사업은 재단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작년도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도는 자격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검정 시험 모형 개발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시험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 지침을 어느 범위까지 줄 것이냐. 너무 세세하게 주면 시험 보는 요령만 생기는 거고, 안 주면 너무 막막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모형 개발에서는 3단계 정도로 정보가 나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까지 보여 줄 거냐 두 번째까지 보여 줄 거냐는 결과물이 나와 본 다음에 국어원하고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명숙: 한 가지 여쭙 볼 게 있는데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주는 건가요?

김옥순: 외국인에게도 주죠. 기본법에도 들어 있어요.

김중섭: 영어로도 나와요?

김원희: 국어기본법에 의하면 공문서는 영어로 발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백봉자: 그것은 저는 팬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산점 같은 것을 주자고 주장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됐지요.

정명숙: 가산점보다 약간 우려되는 것은 시험은 그냥 뭐 공부해서 합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 자체를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옥순: 그럼, 검정 시험에 관해 더 궁금증이 없으십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를 다 알려주는 게 되고, 너무 비밀로 하면 의욕 상실이 되는 거고.

김중섭: 한국어능력시험 보는 아이들도 시험반을 만들어서 공부하잖아요. 우리 기관도 원하면 시험반을 만들어 줘요. 그런데 이 시험이야말로 첫 국가시험이라 더 관심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시험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안내가 있어서 이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의무예요.

조향록: 그 제안을 하고 싶어요. 시험의 시행 목표라든지 구성 요소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논의의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시험 시행이 공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시행되어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도화를 주창하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은 시험문제 문항개발연구팀만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어 교원 자격 부분도 교원 자격심사위원회가 미리 구성이 되어 가지고 차근 차근 시행 준비를 해 가고 있잖아요. 시험 부분도 지금쯤 시험 시행위원회라든지 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문항 개발하는 팀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좀 해서 공고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이런 것을 의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중섭: 제 얘기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아마 같은 얘기일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빨리 위탁 기관을 정해서 그걸 공개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을 과정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혜: 저는 시험준비위원회 구성 같은 것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고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문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내문이든 뭐든지 간에 좀 열린 과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공문이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적극 참여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부의 이 제도가 우리 기관에도 계속 사회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적인 효력을 좀 더 발휘하려면 공문을 통해 계속 안내

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옥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번 교원 자격 심사하고 검정 시험이 양질의 한국어 교사를 키워 나가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될는지, 그리고 과연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 단체에 계신 여러 책임자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하고 또 교육 기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해야 할 일과 민간 단체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중섭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중섭: 항상 어느 회의나 가면 우리나라가 통계가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지금 의사들이나 변호사들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한국어 교사가 많으면 더 좋지만, 어느 정도의 교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통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심지어 대표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세계 몇 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지 물어서 “모릅니다” 하면 왜 그것도 모르느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통계청에 아예 의뢰해서..... 국립국어원이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통계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몇 개 학교가 나오고 없어지는 곳은 어디고 이런 것도 정리가 되고, 선생은 어떻게 필요하고 이 선생들이 받는 월급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오고 기준이 있어야 수급을 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화재단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 대학이든 어디든 평가를 한번 해 보라. 대학의 한국어 교육원도 물론 뭐 폐해도 있겠지만, 평가를 하면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우리가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가르치기 위한 선생을 뽑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봐서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올해는 어느 기관에서 몇 명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의 선생은 있어야겠다는 것이 자격증 발급과도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희: 수요하고 연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시죠?

김중섭: 수요와 공급이 연관될 수 있도록.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려다 보니 어려운 것이지 그것은 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시급히 할 문제라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교사가 몇 명 필요한지 알지요.

김원희: 사실 한국어 보급팀 내부에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교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의 한국어 수요가 앞으로 어느 정도가 늘어날지를 파악을 해야지 어느 정도의 교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올 텐데 지금 그런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해외 문화원에서 그런 조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지역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문화원이 있는 12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한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지역을 위주로 조사를 실시할 거고요. 앞으로 문화원이 코리아센터라는 이름으로 30개 지역까지 확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30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미혜: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한 4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0명 이상이 이번에 교원 자격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응시를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적인 효력이 아주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이 생기면서 우선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졌기 때문에 기관에서 협조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이미 넘은 거 같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90%의 자격을 갖췄다면 당연히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우 문제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큰 사회적 효력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저는 이 검정 시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반 기관의 차원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주 여성의 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간 차원의 자원 봉사 단체를 포함해서 700여 곳이 된다고 들었어요. 700여 곳이라면 제가 정확한 교원에 대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만 700여 곳이 되는 곳에서 무자격자들이—무자격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이화여대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이주민에 대한 사회 통합 정책을 강조하고 계속 그것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에게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쓴다면 훨씬 더 유용하겠지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무자격자들을 자격을 갖추도록 이끄는 역할을 지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파급 효과로 그런 많은 단체들에서 좀 더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홀대받는 위치에서 좀 더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거의 보수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부분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강사료로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들에 대한 대우 부분이 일차적인 요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원 자격 검정 시험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일 것이고, 그것에 발맞춘 뒷받침이 기관 차원에서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그런 교육 현장에서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으로 지역적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자를 뽑아서 한국어 교육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큰 곳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의 몇 %는 자격을 갖춘 교원을 의무적으로 강의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공급될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도 훨씬 향상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를 조금 조금씩 충원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항록: 이미혜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국어기본법, 그중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 얘기할 때 한국어 교원이 종사하는 현장에 대한 관점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이 국내 대학 부속 교육 기관의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발전해 왔고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지금 한국어 교육 현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제 토론회장에 잠깐 갔었지만 새로운 영역으로 신규 편입되거나 창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영역이 굉장히 넓은 부분, 그래서 한국어 교사를 논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대학 차원의 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강사, 그들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어 교육의 현장 곳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 있는, 자질 있는 교사를 양성해서 공급한다든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대학교는 물론이고 신규 창출되는 영역에 국어기본법이 끼치는 영향이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기본법 논의하면서, 교원 자격 문제를 논의하면서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양성하고 인증하고 임용하고 그들의 근무 여건 내지는 처우 이 부분이 연계선상에 있다는 거지요. 한국어 교육계는 지금까지 양성도 미흡했고 인증 부분도 만족스럽지 않았고 임용 부분도 각 기관의 고유 권한에 맞춰서 했고 그다음에 처우, 근무 여건의 처우 부분 역시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들의 자질이라든지 사회적 요건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어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지고 양성, 인증, 임용, 처우 이 부분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되고 지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마련이 된 것 같고, 요소요소에서 영향 효과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빨리빨리 보완해 나가서 그 목적을 달성을 한다면 국가로서는 정책 집행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한국어 교육계로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궁극적으로 처우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좋은 면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두 가지 시급히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 자격은 문화관광부 관련 법안입니다. 기본법이지만 문화관광부 관련 기본법이에요. 그런데 한국어 교육이라는 부분, 또 교사의 교육 현장의 부분을 보면 물론 노동부라든지 여성가족부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대학의 부속 교육기관이니까 교육부 관할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자격 인증하고 임용하고 처우 이 부분이 결국은 문화관광부하고 교육부 사이의 협의의 과제를 낳고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새로 창출되는 영역들에 대한 과급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홍보 부분이고요. 한국어 교사 자원 봉사 집단은 사회적 봉사 정신하고 열정 가지고 일단 다 해 나가고 있어요. 모자라는 게 있어도 신의 뜻으로 돌리기도 하고 자기가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신념 가지고 해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홍보해서 이 법의 효과 부분이 구석구석 널리 퍼져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옥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국어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명숙 선생님 말씀하시죠.

정명숙: 자격증 제도가 생기고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시행되기 전에는 사실 그 법령이 생겨도 어차피 개별 기관에서는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교사를 채용해서 양성해서 썼기 때문에 법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법이 막상 시행되고 나니까 훨씬 더 과급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법이 제정이 되고, 일단 정부에서 이 제도를 이끌어 나가면 민간 기관에서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따라가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민간 기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누차 말씀하셨지만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아울러 자격증 제도가 생기고 정부에서도 교사에 대한 처우, 대우를 적절히 해 주면서 지금 현재 일반 다른 교사 자격증에 비해서 한국어 교사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일반 다른 교사들보다는 사실은 대우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개별 민간 기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대우를 더 잘해 주고 싶어도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요. 자격증 제도가 생기면서 새로 발탁되는 교사들도 좋은 대우를 받겠지만 이미 강의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조금 더 좋은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옥순: 네. 좋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계화재단의 오광근 선생님, 말씀하시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국제 교류 얘기가 나왔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한국어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업 때문에 요즘 바쁘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잠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부하고 협약을 해서 여러 나라에서 시험을 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광근: 예. 2008년부터는 100% 고용 허가제로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한국에 일하러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 국가가 현재 6개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시민단체나 현지에서는 한국에 노동을 하러 가는데 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 브로커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없애고, 불합리한 면을 없애고, 부조리를 없애자는 취지로 시험 제도 개선을 한 것입니다. 교원 자격과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시험을 재단에서 담당자로서 시행하면서 느꼈던 점이 교원 자격증이 국내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외에서 많이 필요한 건데 문화관광부에서 자꾸 국내 쪽으로만 시각을 좁히고 있어서 좀 시각을 국외 쪽으로 돌려서 국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외국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옥순: 외국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현지인에게나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서 그들이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게 하려면 한국어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광근: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 교사가 한국에서 많이 양성되기보다는 사실은 현지에서 양성이 돼야 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자꾸 국내에 국한된다는 게 짧은 경험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순: 현재 노동부하고 협약해서 시험이 시행되는 6개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오광근: 지금 베트남하고요,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이렇게 6개국입니다.

김옥순: 그럼 끝으로 백봉자 선생님이 마무리 말씀을 하시죠.

백봉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문화 교류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한국어를 보급한다는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원을 양성하고 이러는 것이 국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국외적으로 우리 교사들이 파견되고 나가서 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고 중요해졌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하신 교원의 위상이나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좀 해결돼서 처음에 우리가 이 시험 제도를 만들고 처음으로 우리가 교원의 자격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의 원래의 취지에 맞는 국어기본법이 되고 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특별히 국어원에서의 책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고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김옥순: 동남아에서 지금 한국어가 한류 열풍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 대학에 계신 한국어 선생님들, 특히 백봉자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같이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신 선생님들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한데 장시간에 걸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